쉰돐 맞는 국제 부녀절

3 - APR 11
Copy ___ 1961

송 시엽 그림

화살

1960년 3월 상반호 (121)

번영과 행복의 씨앗

송 시엽 그림

판이한 두 정책

원 광수 그림

북조선

남조선

《랑비하지 마오》

차판에서 부리울 때 막 부리웠기 때문에 이곳 덕천 자동차 공장에 도착한 철재들은 막 뒤섞이게 되였다. 그것은 부리울 때 규격별로 묶었던 것이 풀어지고 꼬리표가 달아난 것을 겉으로 보아 비슷한 것끼리 한군데 모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고장은 다 섞여진 것은 모르고 창고에서 섞이지 않게 하노라고 쌓는 사람들에게 《소재가 섞이지 않게 따로 따로 잘 쌓으시오》 하면서 아주 조심한다. 그리고는 소재를 내 줄 때에도 딴 것을 잘못 내주지 않기 위해서 두 번 세 번 출고증을 들여다 보고 내 주었다.

그런데 검사부에서는 또 소재의 질을 대충 검사해서는 가공 직장들에 넘기였다. 가공 직장들에서는 애써 그 소재를 깎는다. 그러나 맨 나중 공정에 가서야 이것이 맞지 않는 소재를 가져 왔구나 하고 만들던 것을 내던지고 만다.

작년에도 이런 일 때문에 허다한 철재가 랑비됐는데 금년 1월에도 이런 재질 오작이 적지 않다.

업무 부지배인은 현장에서 이런 깎다 버린 것들을 보고

《왜 이렇게 오작이 많소. 이렇게 하다간 내가 자재를 낳아도 당해 못내겠소 좀 기술을 빨리 배우오》

《아닙니다. 이건 기술 때문이 아니구 소재 때문입니다.》

《소재가 어떻다고… 동무의 기술이 없으니 그렇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팥을 갖다 주고 메주를 쑤라고 하면 쑤겠어요》

《그래?! 아직도 그렇게 재질 오작이 많소? 또 좀 일러야 겠군》

업무 부지배인은 업무부에 들렸다. 마침 직장들에서 소모 자재를 타러 왔다.

《아니 그걸 벌써 다 썼소?》

업무부에서는 놀란다.

《다 쓰지 않고…우리가 막 쓴 줄 아시우》

《물론 동무네가 랑비는 안했겠지만… 하여튼 절약해 쓰우》

사실 소모 자재에 대해서는 소비 기준도 없으니 현장에서 절약을 하는지 랑비를 하는지 모르고 그저 달라는 대로 주었다. 이럴 때면 업무 부지배인은(이 공장에서 소모 자재래야 도대체 얼마 들어 가겠다고…) 그러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 해 두었다. 《랑비하지 마오》

그런데 그가 출입구를 나서는데 돌연히 바람이 불어와 그의 눈에 세멘트 가루가 날아 들어 갔다. 밖에 쏟아 놓은 쎄멘트들이 바람에 날아온 것이다.

《에이 그놈의 바람은 왜 불어서…》

얼마 후에 바람이 세게 불 때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자 업무 부지배인은 눈에 세멘트 가루들이 날아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외면을 하고 급히 지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얼굴에 쎄멘트 가루가 날아오지 않았다. 이상히 여기고 쎄멘트가 쌓여있던 곳을 가 본즉 쎄멘트는 습기에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는 강 언덕에 나가 보았다. 거기에는 내버려진 녹쓴 절삭밥이 수두룩하다. 절두목이며 다시 살려 쓸 수 있는 바이트 같은 것도 적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그는 아까운 생각 대신에 (야, 깎기두 깎았구나!)·

오작으로 인한 자재 랑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 이렇게 오작 비률이 많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곳 지도 일'군들은 《기술이 어린 로동자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들어 온지 1~2년 밖에 안되는 로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무기능공, 3급공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 학습이나 기술 전습을 안했습니까?》

《생산이 바쁘다 나니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자를 받아 오는데는 아주 관심이 많으나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가는 관심을 잘 안 돌리는 업무 부지배인 동지도 집에 가서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암만 많이 벌어 들여·와도 녀자가 망탕 쓰면 소용이 없어》

리 윤봉

난로가 용광로 였드라면…

구성 팔산 기계 공장에서는 용광로용 비개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였다.

조 명식 그림

전력이 랑비되고 있는 곳에서

—기사 동무! 앞으로 우리 홰'불 모임은 여기서 가지겠어요

일부 제강 직장들에서는 전기로를 제때에 보수 정비하지 않고 있는데서 귀중한 전력을 랑비하고 있다.

계획 없이 일한 결과

일부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오늘은 이걸 해라 래일은 저걸해라 하는 식으로 사업하고 있다.

강원 일보사 정 도유 그림

팔삭동이 《생산 계획》

생산 계획 작성에 대한 독촉을 수차 받은 후에 순천군 사인 농업협동 조합 생산 부위원장은 관리 위원장실로 들어 갔다.

《위원장 동무! 생산 계획을 작성해야 겠는데…》

《……바쁘드라도 할 것은 제때에 해야 할 것이 아니요… 내야 부임해 온지 며칠 안되니… 조합 실정도 모르고… 동무가 책임지고 세우소 그래!》

《……》

(아무리 갓온 어른이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을가?)

생산 부위원장은 조합의 《오락실》이라고 써 붙인 넓은 온돌방을 독차지 하고 《생산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계획 작성에서 집체성을 띄였다는 것을 인정 받아야 할터이니까, 우선 각 작업반장들을 불러서 앞에다 나란이 앉혀 놓고 다음은 조합에서 수판에 능란한 2 명의 조합원을 불러서 그의 좌우에 앉히고 《천리마 시대니까, 계획 작성도 천리마로 달려야 해!》 하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작업 반장들은 얼마전에 새로 임명 받은 동무들이라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잘 몰라서 눈만 멀뚱멀뚱 했다.

《1 작업반장! 동무네는 밭이 몇평이면가?…》

《……》

생산 부위원장은 면적과 인원 수에 따라 우선 옥수수와 벼의 반별 생산고를 쪼겠다.

다음은 토질에 대한 고려도 없이 국가 생산 과제를 포전 번호에 따라 배치했고…

《동무들이 왜 함구 무언이요… 졸리요? 그러면 라디오라도 틀어 놓고 한대씩 피우고 하지…》

생산 부위원장의 주관에 의하여 일사 천리식으로 작성되는 《생산 계획》에 참가한 사람들의 졸음은 라디오도 담배도 막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년간 생산 계획》은 며칠 잘 걸려서 거의 작성되여 가는 어느날 군에서 지도원 동무가 나왔다.

《어서 오십시요! 지도원 동무…》

계획을 짜다가 허리를 뒤로 젖히고 담배를 피우면 생산 부위원장이 지도원을 반갑게 맞아 들였다.

《년간 생산 계획 작성은 어떻게 되였나요?》

《예! 예! 거진 다 됐습지요……여기에……》

《생산 계획서》를 훑어 내려 가면서 보면 지도원의 얼굴은 점점 흐려 갔다.

《부위원장 동무! 계획서는 〈멋있게〉 세워졌습니다!…》

《예?》

《알곡 생산 계획은 토양 성질과 지대에 따른 고려도 없이 면적과 머리 수에 의하여 작성되였고 또 로력 투하도 농기계 도입과 관련한 작업 능률 제고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니…… 특히 적지 적작의 원칙하에 간혼작으로 적어도 토지 리용률은 180 % 이상 올려야 할텐데…… 부위원장 동무처럼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세우다간 곯아 빠지는 것은 알곡 뿐이요!》

《……》

생산 부위원장은 고개를 숙인채 옴짝 달삭하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계획을 작성한 데 대해서는 새로 온 관리 위원장 동무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무! 우리도 체계적으로 방조를 주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이 조합에서 체육이요, 써클이요, 건설이요……등 숫한 로력을 분산시켜 농산에는 총로력의 불과 56 % 밖에 투하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땅을 묵였는데 그 원인이 바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주먹치기로 사업한 데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이 조합은 년간 생산 계획을 세번째 뜯어 고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년간 생산 계획이 8삭동이 《생산 계획》이나 되지 말았으면……

피 호주

농사 짓는데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없는가?

허 능택 그림

부당한 책망

최 영근 그림

—물고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다로 안나오시나요?
—그곳엔 일력도 없냐?! 성어기에 모이도록 해라

홍 종호 그림

그대여 명심하라

안 충모

곧'살을 찌푸리며
누가 볼세라
그는 넝큼 집어 들었다.
대합실에 나딩구는 신문 쪼각—
웬 일이냐?
가슴 후련히 배웅해 주던 글발이여,
지금쯤은 어느 선반공
어느 조합원의 이 손에서 저손으로
읽고 또 읽으리라
수첩 갈피에 소중히 간직해 두었으리라,
이제 독자의 편지도 수천통 날아 오리라,
은근히 믿었던 너 《성과작》이여,

《무엇 때문에
우대를 못받았느냐?
애비의 이름 망신시키며
땅 바닥에 나딩구느냐?》
노발 대발 눈섭이 곤두서는데,

짓밟힌 흙발 속에
간신히 먼지 털며
《난공 불락》《쎈세이숀》
글자들은 분노해 항거한다.

《그대 울그락 푸르락
노여워할 자유는 얼마든지 있으리
무엇이든 쓰고 쓸 자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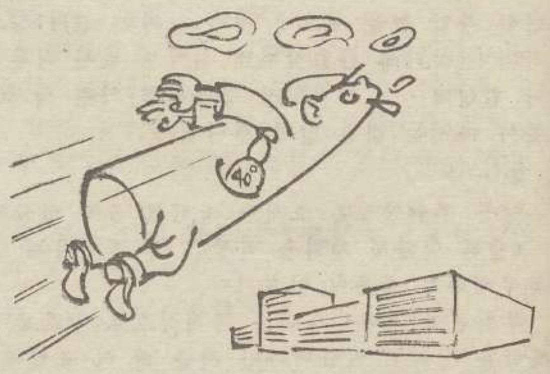
허나 그대 먼저 생각하라
머리 속에 정렬시킨 몇 마디 긁어 모아
조립한 글줄에 대하여
읽을 때 이것 하나 때문에
옥편을 안고 씨름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대하여,
안해와 마주 앉으면
제법 구수한 말 다정하다가도
원고지 앞에 앉기만 하면
공연히 시뜻해지는 버릇—

《진리 량난》이면(알건 모르건)
어쩐지 위신 있어 보이고
《어쩔줄 모른다》면
아무래도 어깨가 낮아지는 듯

아름다운 생활, 들끓는 현실을
쇠표챙이처럼 딱딱하게 그려 내면서도
자 읽으라 왜 안 읽느냐?
불쾌해할 권리가 있느냐?
그대 불쾌해 할 때 독자들은 백배의
분노를— 이것만은 명심하라
성낼 권리 불만해할 자유는
바로 독자에게만 있다는 것을.

작업장에는 거북의 걸음으로

놀음터에는 로케트식으로



최 영근 그림

계획을 미달한 곳에서

최 영근 그림

— 계획을 다 할때까지만 붙들고 있으시요

긴급 제의

평북도 향산군 건재 상점 일'군들은 농촌에 농기계를 제때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사료 분쇄기를 비롯한 수많은 농기계들을 2~3년씩 창고에서 사장시키고 있다.

홍 종호 그림

십년공부 나무 아미 타불

오 석

옛날—
글 읽기만 좋아하는 선비 한 사람
새벽부터 밤 늦도록
책 속에만 묻혀 있었다네,

천자 무제시로부터, 론어. 맹자까지
사서(四書), 오경(五經)을 통달하고
오행, 륙갑을 단숨에 내려 꼽으니
세상 사람들의 칭찬의 자자터라.

헌데, 하루는 선비 방에
화재가 일어 났네
선비는 어쩔줄 모르고
《어—》《어—》 팔만 내여 젔는다.

이 광경을 본 그의 마누라
랭수를 동이채 쏟아 부으니
불'길은 삽시에 멎고
연기는 점차 가셔졌더라.

선비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과연 물이 불을 이겼구려!》
그는 감탄하고 또 감탄했더라.
물이 불을 이긴다는 리치를 풀어
선비 천 백권의 책을 읽어도
불티 하나 끄지 못했으니
선비의 십년 공부 《나무 아미 타불》

이 어찌 옛말로만 그치랴?!

제자리에 붙지 못한 광고판

해주시에서

평양 정밀 기계 공장에서는 작년 9월에 하차한 귀중한 수입 기계들을 선로 주변에 내버려 두고 있다.

견본은 크건만

함북 김책시 성남동 31반 정 광명 그림

덮어 놓고 찍는다

—바쁜데 빨리 다녀 와야겠소
도중에 목욕할것 잊지 말고…

백 인균 그림

황북 서흥군에서는 작년에 착공한 목욕탕을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만리 장성을 쌓는가? 목욕탕을 짓는가?

허 능택 그림

《터무니 없는 보도》

희 주

이따금씩 벼락 아닌 벼락을 맞아 정신이 얼떨떨해진 리 승만은 또 근심에 잠겼다.

이때 경무대에는 워싱톤으로부터 원거리 전화가 시끄럽게 울려왔다.

—할로! 난 아이젠하워요. 리 승만 당신 요즘 무엇하고 있소?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 북한 공산국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데……

당신 미국 망신 몽땅시킬 작정이오?

—아이젠하워 대통령 각하! 무슨 말씀을!

대통령 각하께옵서 분부가 내리신대로 《공산주의 위협》이라고 벅짝 떠들면서 《엄중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위협을 하였사옵나이다—

아이젠하워는 책상을 팡 쳤다. 그리고 나서 한바탕 울러댔다.

—아니 그럼 북송을 제재할 계책이 그리두 없단 말이냐? 이제는 가만이 앉아서 망신을 기다리는 판이구나! 망했다 망했어……

—아 아니 올시다 대통령 각하! 저를 너무 책망 말아 주십시오. 재일 교포 북송 저지 계책 때문에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각하께옵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사오나 요즘 일본 기자들 한테서 《재일 조선인들의 북조선 송환을 방해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왜 재일 조선인들이 공산국으로 가는가》에 대하여 반성해 보라고 조언까지 주고 있습네다.

—뭐이 어째! 빌어 먹을 놈 같으니— 하고 아이젠하워가 결을 발칵 내는 바람에 리 승만은 대가리가 묵사발이 되여 그 자리에 털컥 주저 앉고 말았다.

(또 벼락이다 벼락이야! 아-멘, 나에게 재일 교포 북송 저지 책략을 주옵소서!)하고 리 승만은 손을 가슴에 올려다 십자를 그어 보았다. 이때 노크 소리도 없이 쌍거풀 두 눈깔을 왕방울처럼 디글거리며 맥코노이(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가 경무대에 나타났다.

—리 승만 대통령 어찌된 일입니까? 용기를 내시오 용기를! 《현명》한 계책이 생겼습니다. 친히 워싱톤으로부터……

리 승만은 벌벌 떨면서 맥코노이 앞에 밧짝 다가든다.

—북한 공산국에 돌아 온 재일 조선인들이 강제 로동을 하고 있다고 벅짝 떠드시오. 그러면 미국의 위력 있는 유피아이 통신은 세계에 향해서 그것을 전파시킬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일본에서 아직 떠나지 않은 조선 사람들은 북한 공산국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리 승만 대통령! 얼마나 《현명》한 책략입니까?

리 승만은 기운을 얻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전화통을 들어 공보 실장을 불렀다.

—북한에 돌아온 동포들이 강제 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온 물품을 몽땅 몰수당했다고 벅짝 떠들도록 하여라—

—대통령 각하 황송하오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넘치가 없는가 봅니다. 아니 글쎄 북한에 간 동포들이 소질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고 희망대로 공부를 하고 모두가 훌륭한 주택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처지 아니 옵니까? 대통령 각하! 그리고 우리가 벼락을 내릴 때 마다 역증이 나도록 써 먹은 《강제 로동》이란 거짓말은 힘이 너무나도 없는가 봅니다.

—뭐이 어째, 넘치가 없다구? 워싱톤에서 보내온 《현명》한 책략이다. 너에게는 집행할 의무만 있다. 넘치가 다 뭐냐! 벼락이다 벼락이야! 그러니 눈을 감고 귀를 틀어 막고 벅짝 떠들어 대기만 하란 말이다—

이렇게 조작한 벼락 지시가 내리자마자 지난 1월 24일 《서울 신문》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이 제공한 공보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본에서 귀국한 동포들에게 《강제 로동》을 시킨다는 터무니 없는 수작을 한데 뒤'이여 미국의 유피 아이 통신은 이 보도를 받아 물고 떠들어 댔으며 지난 2월 5일에는 북조선에서는 재일 동포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 《텔레비죤 수신기와 기타 현대적 전기 기구들을 압수하였다》고 떠벌렸다.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고의적으로 외곡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물론 이것이 론의할 한푼의 가치도 없으며 삼척 동자라도 이를 믿지 않을 어리석은 헛 수작이라는 것은 더말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뚜껑이나 덮어라

우수 경첩에 개구리 입 벌리듯 로구 리 승만은 《정, 부통령 선거》 놀음이 박두하자 《선거 강령》으로 《자립 경제 수립》이니 《진흥》이니 《개혁》이니 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미끼로 내걸고 있다.

《자립 경제 수립책》

《세제 개헌안》

《농촌 진흥책》

박 승히 그림

《자유》로운 《민주 선거》

박 승히 그림

박 승히 그림

뒤 터진 선거함

—개표 시간이 가까워 왔으니 어서 들어가 앉으시오!

송 용남 그림

흡 혈 귀

몽둥이 예산

절름발이

송 용남 그림

놈들의 아가리와 인민들의 아궁이

조 명식 그림

화 재

리 판보

여기는 서울, 경무대의 밤은 깊어 간다. 어제 저녁 《미국의 번영》과 《북진》의 성공을 위해 미국 대사와 함께 마신 술에 취한 리 승만은 깊이 잠들었다. 《대한 민국》을 누가 통채로 둘러 메고 달아나도 모를 지경으로 코를 곤다.

그런데 웬 일인가? 갑자기 재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화재를 알리는 비상 경종이 울리더니 서울시 한 모퉁이에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질주하는 소방차의 경적 소리,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 통곡 소리, 공포에 질린 웨침, 어린이의 울음 소리, 순경들의 꽥꽥 거리는 소리, 서울시는 순식간에 전쟁판처럼 소란해 진다. 혼란한 군중을 제지하려는 순경들의 총'소리까지 더 한층 살'기를 띠며 울려 온다.

이 소란통에 《대통령》 리 승만의 단잠은 그만 깨고 말았다. 그는 화가 독같이 치밀어 올랐다.

《미련한 백성놈들이라니 재밤에 왜 이리들 떠든담.》 그는 잠옷 바람으로 눈곱이를 비벼 떼면서 당직 호위병을 불렀다.

《소란스러워서 잠 들 수가 없으니 대체 무슨 일인고?》 자기딴에는 위엄을 돋구노라고 헛기침까지 해가며 호령을 쳤으나 그 모습은 흡사 원숭이에게 등걸이를 입힌 격이다.

《네, 대통령 각하, 서울 시내에 대 화재가 발생하였사옵나이다.》

《뭐 화재가, 어느 쪽에서… 경무대에서 머냐? 가까우냐?》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보았으나 보일리 만무하다. 그는 자기가 낮에도 잘 못보는 맹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경무대에서 아주 가까운 곳 같기도 하고 …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뭐, 가까와! 이것 큰일 났군, 경무대까지 불'길이 번지면 어쩔테냐. 소방대 녀석들은 뭐하고 있는거냐, 어서 불을 꺼라! 불을 끄라구!》 그는 맨발을 구르며 불호령을 친다. 이때 내무부 장관이 달려 왔다.

《각하, 편안히 주무셨습……아니, 죄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재밤에 번거로움을 끼치게 하여…》 그러나 그의 인사는 끝이 난 리 승만의 퉁명스러운 말에 중단되고 말았다.

《잘 왔소, 그래 장관은 내가 불타 죽었나 보려 왔소》

《원 그럴수야… 그저 제힘이 모자라…》 그는 어쩔줄을 모르고 당황하며 말을 잇는다.

《… 지난 해만 해도 1,600 건이나 화재를 내고 오늘밤 또 이처럼…》

《다른데 불이야 만번 일어난들 무슨 상관이 있소, 저 불'길이 경무대까지 번져 온다는데 당신의 소방차는 뭘하고 있단 말이요?》

《각하 소방차라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짐자동차에 도람통 실은 것이 한두개 있을 뿐입니다. 있다 해도 수원지에 물이 말라 수도물도 안나오는 판인데 있으나 마나 생각됩니다》

그는 있는대로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에 리 승만의 잠옷이 바르르 떨리더니 장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선다.

《그래 당신의 직책이 뭐요, 내 침실에까지 불이 번져 오기를 기다리라는 그 말이요?》

《원 그럴수야 있겠습니까, 사실이…》

《듣기 싫소 당신이 정말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체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오》 리 승만의 발광은 부질 없는 것이였다. 사실 도람통 소방차라는 것도 방금 파철더미에서 기여 나온 것 같은 고물인데다 오늘 밤에는 그것마저 고장이 나서 제구실을 못하게 된 것이다. 내무 장관은 황송하게 손을 맞비비며

《각하 화재는 여기서 퍽 멀리 떨어진 곳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좀 마음이 놓인 리 승만은

《응 그런가, 그럼 진작 그렇게 보고 할게지 그거 참 잘됐소 그런데 어데요?》

《동대문구 창신동 일대 올시다》.

《그래 거기 미국 어른들의 상점이나 저택은 없소?》

《없습니다. 모두 가난뱅이들의 판자집과 움막집들이 올시다》

《참 잘 됐소. 미국 어른들이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소》

《그리고 거기 자유당이나 정부 기관 건물은 없었소?》라고 다그쳐 묻는다.

《그것도 없습니다.》

《좋소, 아주 좋소》 이제 마음이 푹 놓이는지 얼굴에 희색을 보이는 바람에 장관도 힘을 얻어

《네, 그런즉 안심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관이 직접 지휘하여 곧 불을 끄게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돌려지는 책임 추궁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고 장관은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없는 근심이였다.

《장관, 서둘러 불을 끌 필요는 없으니 장관도 돌아가 쉬게 하오》

《?!……》 갑자기 변한 대통령의 태도에 장관은 어리둥절 해졌다.

《가난뱅이 판자집들은 도시 미관상 헐어 버리기로 돼 있은즉 오늘 밤 화재는 차라리 잘 됐소.》 이제야 그의 뜻을 알아 차린 장관은 겨우 안심하였다.

《지당한 말씀이 올시다. 한꺼번에 철거시킬 생각도 있었으나 민심이 소란할가봐 주저했더니 우리 손 안대구 처분하게 된 셈입니다.》 일이 이쯤 되고 본 즉 미국제 소방차 사올 걱정도 없게 됐고, 수도물이 안나와 불을 못꺼서 애타하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도 아무 상관 없는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게 됐다.

《그런데 몇집이나 철거— 아니—타버렸소?》 그는 어제 미 군사 고문에게서 시내에 군용 창고 건축 기지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터라 화재난 지역을 떼 주리라고 타산하고 있는 것이다.

《근 300 세대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소, 하루'밤에 300 세대의 화재— 아니—철거라, 잘됐소 하하…》

장관도 따라 웃는다. 그들의 웃음 소리는 화재 현장에서 들려 오는 백성들의 비통한 울음 소리를 비웃는 악귀의 웃음과도 같이 깊어가는 밤 하늘에 퍼진다.

《그럼 장관도 돌아가 쉬오, 괜히 잠만 밀쳤소, 그런데 엄동 설한에 집 잃은 사람도 많을 터이니 《대책》을 꼭 세워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겠소.》

《네 대책을 꼭 세우겠습니다.》

× ×

그 다음날 대통령 분부대로 화재 리재민 1500 명에 대한 《대책》은 취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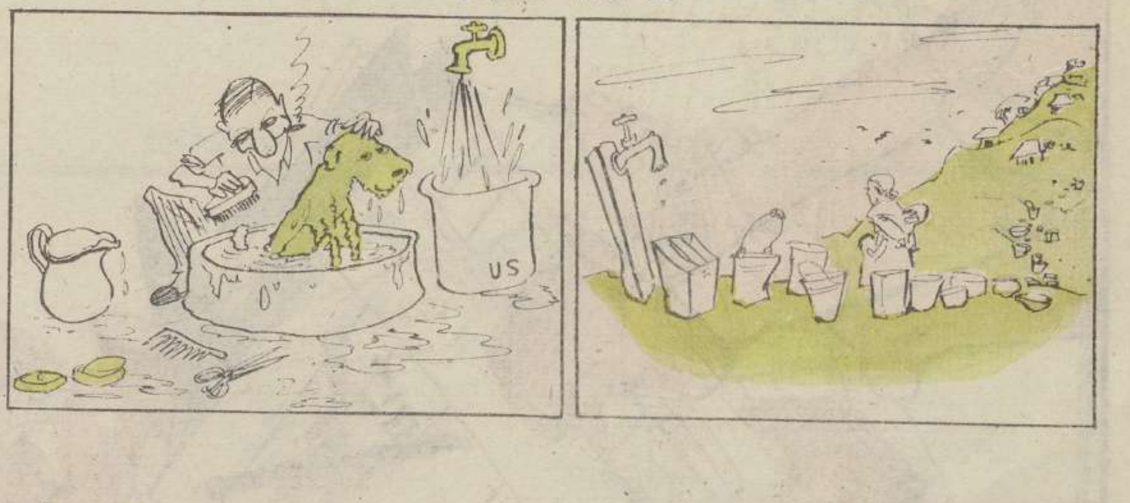
술 취한 미군놈이 내던진 담배'불에 의하여 맨 처음 불이 일어난 집 주인은 《불조심》을 안한 탓으로 많은 집을 태웠으며, 이로 인하여 대통령의 단잠을 깨우게 한 죄과로 체포 구금됐고, 또한 연기 가시지 않은 화재 현장에는 난데 없는 게시판 한개가 생겨 났는데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 한장이 붙여 있었다.

—첫째 서울 시민 제군은 금후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사.

둘째 본 화재 현장 구역은 철거 대상 구역으로 결정됐으니 주택의 재건과 시민의 거주를 허가하지 않음, 이상— 서울시 경찰 국장—

이 포고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미제와 리 승만을 저주하는 반항의 불'길이 어제'밤 자기들의 집을 태운 불'길보다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있고도 없는 것



상학 종소리

—종 소리만 들려도 떨리누나

—집 기우는 놈의 세상은 60 평생에 처음야

백 인균 그림

우둔한 불장난

조 병조

썩어빠진 괴뢰군은 물론 승냥이 무리 같은 미군 양코배기까지 내 몰아 이른바 《원자전 가상》하의 《련합 야외 대련습》이란 연극을 벌려 놓은 날! 미국의 호전 장군들은 로구 리 승만을 데리고 《대련습장》에 나타났다.

추위는 령하 20도를 오르 내리고 있었다.

미국의 호전 장군 존슨은 곁에서 와들와들 떨고 있는 리 승만을 보다 못해 《대통령 각하! 춥습네까?》하고 물었다.

《괜찮습네다》 리 승만은 창자로부터 새여 나오는 가느다란 목소리긴 하나 그래도 단마디로 잘라 부인하였다.

《대통령 각하! 듣자니 요즘 각하께서는 풀이 죽은 모양인데 웬일입니까? 기운을 내시요.

우리가 조직한 이 대련습은 각하의 기운을 돋구어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네다…》

《네네! 잘 알고 있습네다》…》

《남조선 백성들이 각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번 훈련에서 한번 본때를 뵈여 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국군의 기세를 뵈여 주어야 한단 말입네다. 그래서 어떤 놈도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해야 합네다.》

《옳은 말씀이외다.》

《우리 미국에서는 이 훈련이 끝나면 이번에는 각하의 국군에게 로케트 발사함을 비롯하여 구축함, 잠수함, 에프 100 신형 전투기들을 더 넘겨 줄 것입니다.

또한 중국 사람을 반대하여 쓰던 사이드 와인드 유도탄도 넘겨 줄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국군 한 개 사단을 원자 편제 사단으로 재편성하게 될 것입네다.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계획입니다…》

존슨은 생색을 내면서 이렇게 리 승만의 원기를 돋구어 주었다.

그러자 늙어 빠진 리 승만의 시들은 목대에 흥분된 괴'줄이 쭈룩 뻗치였다.

드디어 그는 연단에 올라 섰다.

《…국군 장병 제군들! 여기와 계시는 미국의 장군님들은 우리에게 로케트 발사함, 구축함, 사이드 와인드 유도탄까지 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더욱 기운을 내서 원자전에 익숙하도록…》

너무 제 흥분에 겨워 리 승만은 그만 말을 채 끝맺지도 못하고 연단에서 물러섰다.

존슨이 《그리고 국군 장병 제씨들! 또한 우리 미국은 국군 한 개 사단을 원자 편제 사단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라고 한마디 더 붙이자 사열대에서는 리 승만의 박수 소리만이 처량히 울렸을 뿐이였다.

입으로서는 《평화》를 지꺼리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미국의 호전 분자들은 범죄적인 전쟁 준비와 철없는 불장난에 미쳐 날뛰고 있다.

특히 이 원쑤들이 오늘 남조선에서 로구 리 승만이를 추켜 세우면서 광란적인 전쟁 준비와 부질 없는 《원자 기동 훈련》 등 군사적 소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궁지에 빠진 저들의 기세를 만회하며 갈수록 높아 가는 인민들의 반미 반 리 승만 기세를 억누루고 뿌리채 뒤흔들리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구원해 보자는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 가는 자들의 한낱 허장성세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한미 련합 야외 대련습》이 있은 며칠후 한독을 맞고 병석에 눕게된 리 승만이에게 괴뢰 국방 장관이 찾아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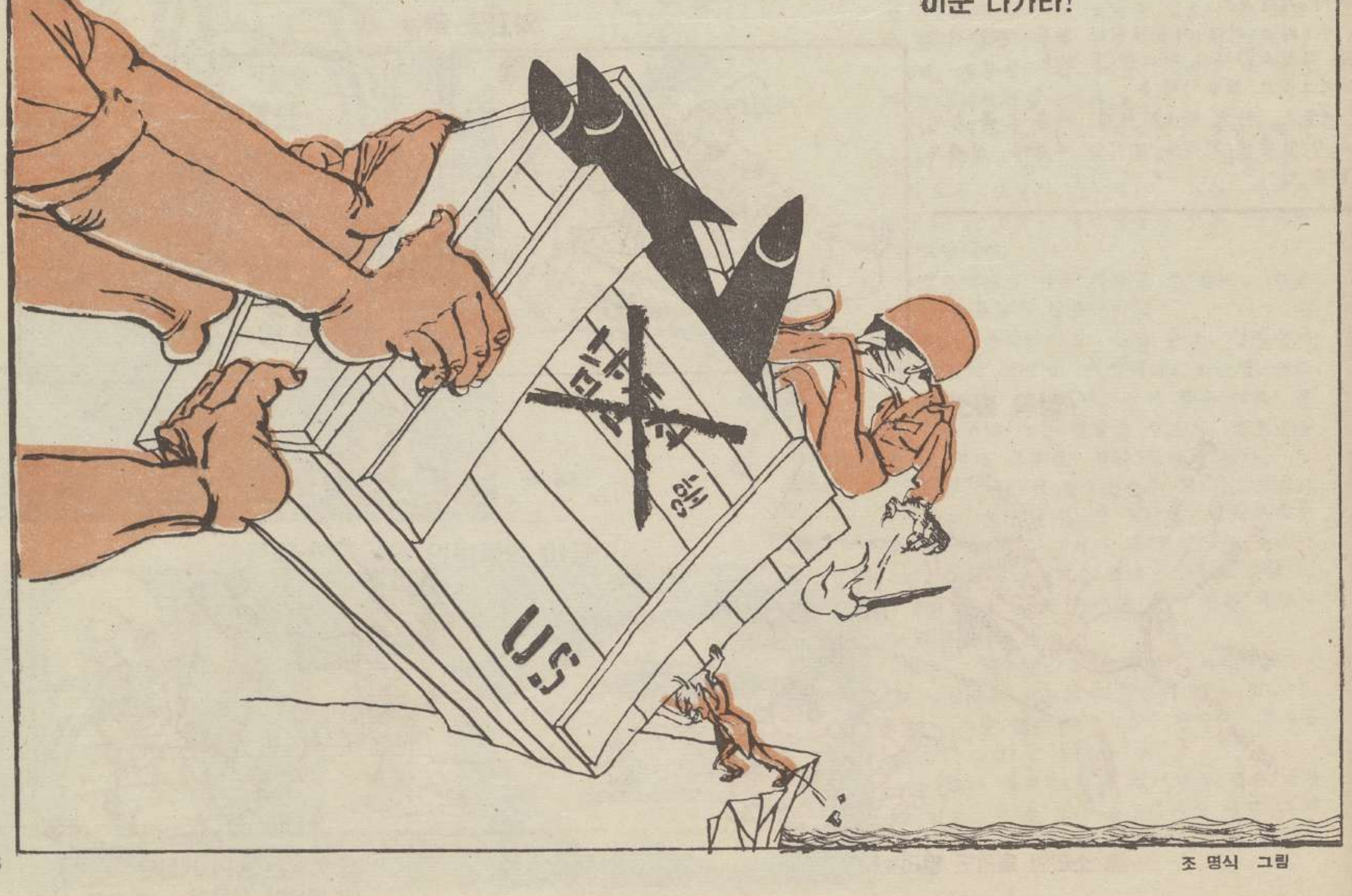
《각하의 국방 장관이 한미 련합 야외 대련습》 결과를 아뢰옵나이다.

훈련은 우리 국군 병사들 속에서 얼어 죽고 또 사기가 극도로 저락하여 도중에서 후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을 자랑하는 미국 제트기까지도 훈련 도중 추락되여 망신이 컸사옵니다…》

《에잇 망할것들! 일은 다 틀렸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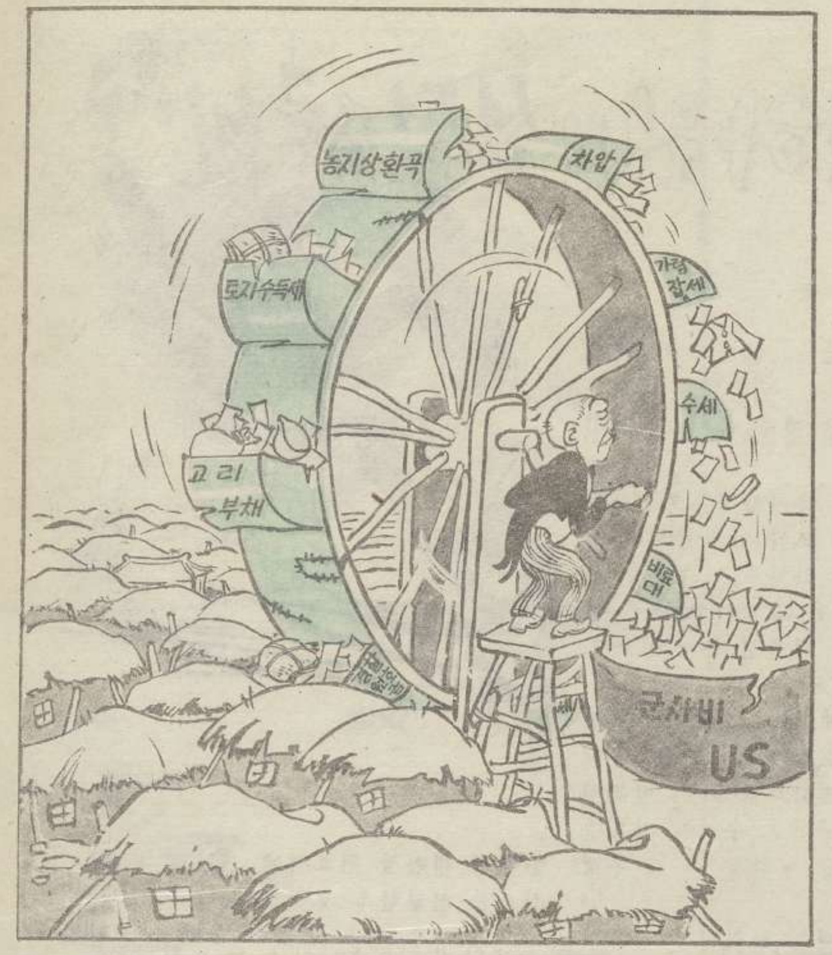
상전의 부채질에 억지로 올랐던 기세가 푹 꺾기운 리 승만은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에 쓸어지고 말았다.

미군 나가라!



조 명식 그림

리 승만식 수탈



월 광수 그림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반인민적인 농촌 수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농민들의 처지는 날로 악화되여 가고 있다.

범죄적 시험과 당연한 폭발

홍 종호 그림

미제 호전 장군들은 피리를 즐고 남조선에 드나들면서 새전쟁 준비와 긴장 상태 격화에 날뛰고 있다.

분주한 호전 장군들

백 인균 그림

새로운 발사기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으로 령락된 자기 위신을 돋우어 볼려고 미국 로케트가 세계 제 1위라는 깜빠니야를 조직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아이젠하워의 선전 《공세》

로 철

아이젠하워는 미국 국가 안전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제씨들! 지금 미국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처하여 있소.

당신들도 들었겠지만 얼마전에 모쓰크바에서 또 다시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의 정치 협상 위원회 회의가 있었소. 그들은 군비 철폐와 고위급 회의를 요구하고 대독 강화 조약의 체결과 서부 베를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소.

이것은 우리 미국에게 아주 불리하단 말이요. 우리 미국에게 요구되는 것은 《광범한 힘의 토대를 가진 평화》 즉 다시 말해서 《랭전》인데 모쓰크바 선언은 우리의 정체를 폭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평화를 위한 투쟁에 불러 일으키고 있소.

이것이 첫째고 두번째는 쏘련이 1만 2천 6백 키로 짜리 로케트를 쏜 사실이요. 그것도 2 키로의 편차 밖에 내지 않았다니 이것은 백 키로 밖에 사과 알을 놓고 그 씨를 쏘아 맞췄단 이야기와 흡사한 것이요.

그런데 다 아시다 싶이 우리 대륙간 탄도 로케트 《아틀라스》는 사정 거리가 5천 키로 편차는 20 키로 인데다가 아직 완성될 날도 까마득한 형편이 아니요?

그래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미국은 2등국이다》, 《종이 범이다》라는 소문이 더욱 자자하게 되였단 말이요!

아주, 아주, 불리한 여론들이요!

이 여론은 반드시 분쇄되여야 하오.

우리는 대대적인 국제적 선전 공세를 취하여야만 할 것 같소! 우선 《자유 세계》의 동 서방 초소와 서부 독일과 남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쓰크바 선언 정신을 불살아 버리고 우리 미국이 쏘련보다 결코 약하지는 않다는 것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선전하여야 할 것이요.

《정보국장 알렌. 델레스씨! 당신은 이제 당장 일본으로 날아 가시오.

그리고 륙군 차관보 존슨씨! 당신은 인차 서울로 떠나시오.

인차 행동을 개시하고 그 결과는 전화로 나에게 알려 주시오》

× × ×

이틀후 아이젠하워는 수화기를 들었다.

《정보국장이요? 안녕하시오? 일이 잘 되여 간다고? 그래 어떤 조치를 취하였소? 모쓰크바 선언을 공판하는 공개 재판을 조직했다고? 그것 참 기발한 방법인데……. 그래 어떻게 되였소?

모쓰크바 선언을 찍은 수많은 삐라를 압수해서 재판장 피고석에 《앉혀 놓고》 사형 선고를 판결한후 모두 불살아 버렸다구?

그 삐라를 찍은 놈들은 공판에 부치지 않았소? 모두 어데 숨었는지 한 놈도 붙잡지 못했다구? 아니, 이 사람아, 종이장에 《사형》을 준다고 해서 그 선언 정신이 없어지겠는가?

내가 불살아 버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엣! 이 미욱한 사람!》

수화기를 내던지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 번에는 서울서 긴급 전화가 왔다.

《나요! 대통령이오! 존슨씨요? 그래 서울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조직했소? 신문 기자 초대회를 조직해서 일장 연설을 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그건 좋소! 몇 놈이나 모였소? 리 승만의 내무장관 녀석을 시켜서 1천여명을 불들어다 앉혀 놓았다고? 그래 성과는 있었소?

쏘련이 사정 거리 1만 2천 6백 키로짜리를 쏘았으나 무서워할 건 없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국은 《세계 제 1》이라고 신문에 써야 말이지 그렇지 않다간 몽땅 잡아 죽이겠다고 했더니 모두 질겁을 해서 와하고 벌 둥지 헐어 놓은 것처럼 다 도망쳐 버렸다고?

아니 이 사람아! 하필 그런 자리에서 1만 2천 6백 키로 이야기까지 꺼낼건 뭐요?

그래 결국 신문 기자 초대회에는 한 놈도 안 남았단 말요?

겨우 두 사람만이 남았다고? 그래 모쓰크바 선언 정신을 불살아 버려야 한다고 력설했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그 두 놈은 그만 그 자리에 기절해 넘어져 버렸다구? 아니 그래 그 약한 놈이 대체 누구. 누구였소? 뭐!? 리 승만과 내무 장관이라구!?

아이구… 하느님 맙소서……》

방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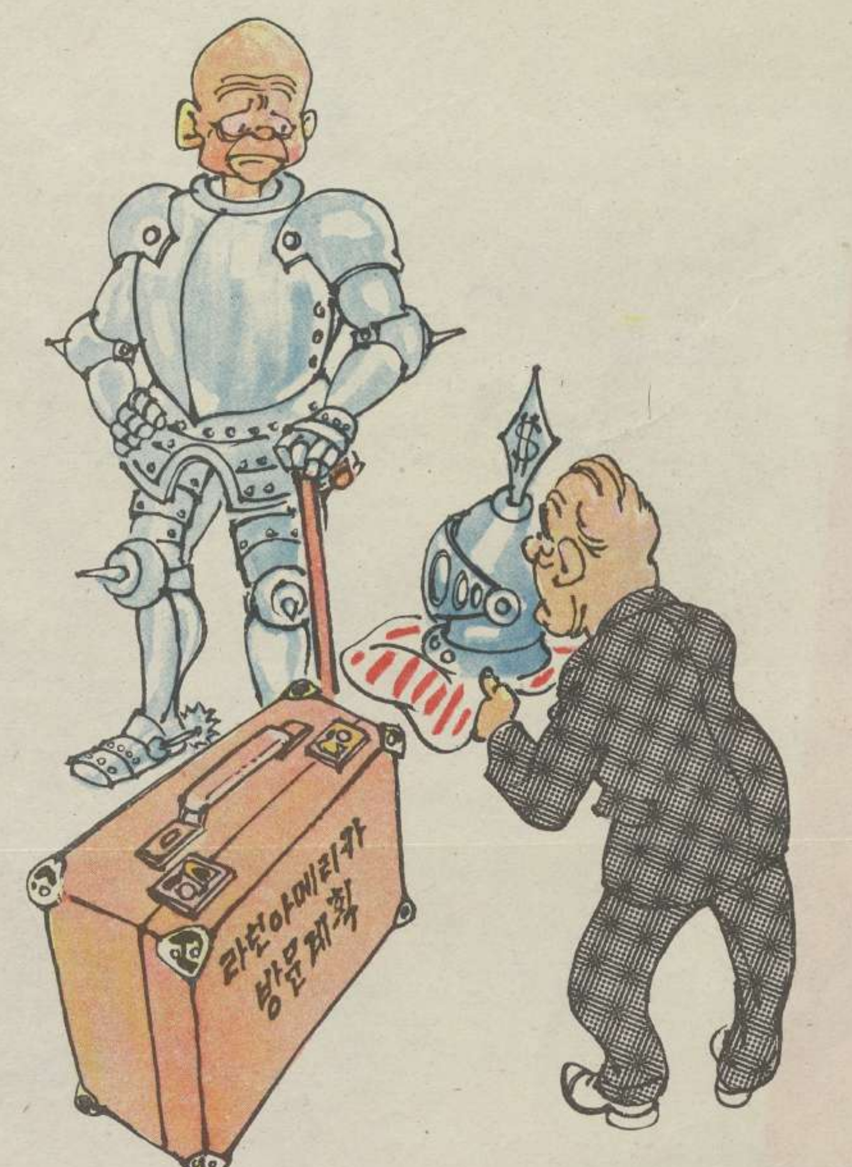
미제는 핵무기 시험 중지를 위한 제네바 3렬강 회담 과정에서 장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책동하였다

홍 종호 그림

발악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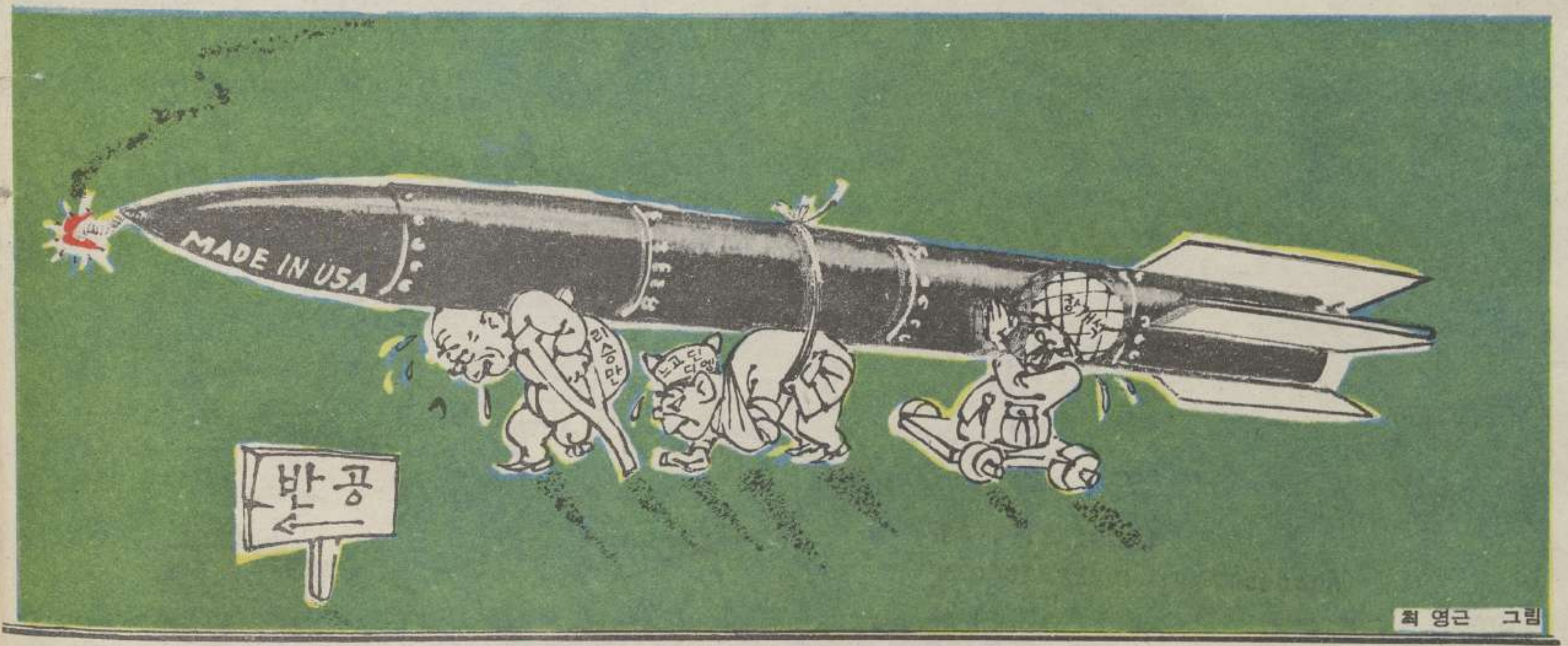
나드리 옷



닉슨—대통령 각하! 행장은 괜치 않은데 제 경우를 봐서 안심이 안되누만요

최 영근 그림

자폭 《삼용사》



최 영근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262
발행 1960. 3. 11
(값 40전)

8034
Хвальсаль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의 선언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은 1958년 5월에 진행된 와르샤와 조약 기구 정치 협상 위원회 전번 회의 이후 국제 정세에서 일정한 호전이 나타난 데 대하여 만족감을 가지고 지적한다.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루빠들에 속한 국가들 간의 다년간의 《랭전》 끝에 처음으로 평화 시기로서는 정상적인 관계가 설정되기 시작하였으며 긴장 상태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으며 호상 신뢰의 강화를 위한 길이 열려지고 있다. 오늘 세계는 공고한 평화를 수립할 목적으로 주요 국제 분쟁 문제들을 조정할 데 관한 회담의 시기에 들어 섰는바 《랭전》 지지자들은 패배하고 말 것이다.

국제 정세의 이러한 개선의 [illegible]계에는 세계 무대에서의 력량 대비에서 최근 년간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이 놓여 있다.

최근 년간은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위력이 급속히 장성한 해들이였으며 단일한 사회주의 진영의 테두리 내에서 그들이 가일층 단결된 해들이였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에서의 쏘련의 위대한 성과들로써 특기된 해들이였다. 제 1 인공 지구 위성이 궤도에 들어 섰으며, 달 표면으로 로케트가 발사되고 일찌기 한 번도 지구쪽으로 돌아 선 적이 없는 달 뒤'면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 것—이것은 인류로 하여금 자연의 힘의 인식과 정복을 위한 인류의 투쟁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게 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달성한 그 성과들의 웅대한 총화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년간은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적극성의 새로운 앙양으로써 그리고 식민지적 및 반식민지적 예속에서 해방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평화 애호 국가들의 국제적 역할의 가일층의 제고로써 특징지어졌다.

그 결과 세계에서의 력량 대비는 로케트—핵 군비와 기타 군비의 경쟁의 중식, 《랭전》의 청산,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 여하를 불문한 모든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더욱 [illegible] 변경되고 있다. 국제 분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 [illegible]에 의거하며 전쟁의 길에 들어 서려는 그 어떠한 기도도 평화의 [illegible]적으로 [illegible]면의 그 어떠한 [illegible] 괴멸을 초래할 그러한 적

국제 정세의 개선은 국제 관계의 많은 분야들에서 벌써 그 열매를 가져 오고 있다.

1959년 말에 남극의 평화적 리용에 관하여 쏘련, 미국, 영국 및 불란서를 포함한 12개 국가들의 중요한 협정이 체결되였는바 이 협정에 따라, 비록 아직은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지만 이 광대한 대륙이 핵 시험 진행을 포함한 그 어떠한 형태의 전쟁 준비 범위에서도 완전히 제외되고 있으며 평화적 연구와 과학 분야에서의 국가들의 협조의 지대로서 확정되고 있다. 1959년 12월에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연구를 위한 유엔 상설 위원회 창설에 관한 유엔 총회의 결정도 옳은 방향에서의 유익한 조치로 되는바 그 위원회 참가국들 속에는 와르샤와 조약 기구의 7 개의 성원국들인 알바니야, 불가리야, 웽그리야, 뽈란, 루마니야, 쏘련 및 체코슬로바키야가 들어 있다.

이와 아울러 회의 참가자들은 서방 국가들의 유력한 세력들이 평화의 공고화를 계속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들은 무기 생산에서 자기들이 얻는 리윤으로 하여, 전쟁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들을 위협하게 될 치명적 위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이거나 또는 국가들 간의 정상적인 평화적 관계를 생각할 수 없으리만큼 《랭전》의 얼음에 얼어 붙은 그러한 정객들이다.

나토 성원국들은 팽창된 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히틀러 장군들과 장교들이 지휘하고 있는 서부 독일 련방군에 각별한 주목을 돌리면서 그 군대 인원 수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있다. 련방군은 로케트 무기로 장비되였다. 독일 련방 공화국 앞에는 이 무기 생산의 길이 열렸으며 그 뿐만 아니라 련방군을 원자 무기로 무장시키는 방향에서 가일층의 조치들이 취하여지고 있다. 1959년 12월에 진행된 나토 리사회 회의가 이 쁠럭 참가국들의 무력을 가일층 증강할 데 대한 계획을 심의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서부 독일 군국주의의 강화와 병행하여 일본에서는 군국주의 세력들이 확연히 활기를 띠고 이 나라가 전쟁 준비에 더욱 끌려 들[illegible]는바 최근에 있은 일본과 미국간의 [illegible]조약 조인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illegible]간 또한 세아토, 쎈토 및 그 [illegible]비 집편의 계속이 방위적 [illegible] 정당화되거나 설명될 수는 [illegible]

[illegible] 적대자들이 아직도 [illegible]여 준다. 이것 [illegible] 활동가들 [illegible]가이한 [illegible]에

이다.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당면한 군비 축소 회담의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현재 동서 국가들 간의 군비 축소에 관한 성과적인 회담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전제 조건들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쏘련 정부가 유엔에 제기한 군비 철폐안은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된 립장을 표명하고 있다. 와르샤와 조약의 전체 성원국들은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에 관한 앞으로의 협정의 참가자가 되려는 자기들의 념원을 천명하는 바이다.

본 회의에 대표들을 파견한 국가들은 유엔의 상기 결의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맨처음으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한 국가가 바로 일방적으로 자기 병력을 120만 명 축소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 와르샤와 조약 기구 참가국인 쏘련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illegible]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쏘련 병력 수는 1956년에 서부 렬강 자신들이 쏘련과 미국이 가져야 할 수준으로서 제의한 수준보다 낮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은 미국이 쏘련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령토와 국경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사실상의 병력 수보다 낮게 될 것이다. 서부 렬강의 군사 쁠럭들이 군비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쏘련 병력의 현 정원을 3분의 1 축소하는 것은 군비 축소 분야에서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하며 신뢰에 대하여 신뢰로써 대답하도록 다른 국가들을 깨우치게 될 선의의 행동이다.

서방의 어떤 자들은 국제 문제들에서의 그 어떠한 좋은 행동이나 그 어떠한 훌륭한 발기를 그릇되게 설명하며 왜곡하려 [illegible]하고 있다. 지금 군비 축소의 반대자들이 쏘련 병력의 새로운 축소가 군비 축소를 위한 조치인 것이 아니라 군비 개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군비 축소 분야에서의 실천적인 행동 앞에서 [illegible] 같은 [illegible]의 고의적인 비방심성만이 [illegible]한 주장들을 할 수 있다.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들만이 자기 병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누구에게 명백하지 않겠는가! [illegible] 현 조건하에서 나라의 방위를 위하여서는 [illegible] 군대와 타국 령토상의 군사 기지들이 필요하다. 략탈적 계획을 꾸미는 국가가 과연 자[illegible]으로 자기 병력을 축소할 수 있겠는가? 군[illegible] 전투력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그 군대를 [illegible]성함에 있어서조차도 병력 수를 축소하는 [illegible] 그 국가에 리롭지 못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본 회의에 대표들을 파견한 국가들은 사[illegible]의 진영의 기타 나라들과의 합의 밑에 채[illegible] 자기 병력의 새로운 대폭 축소에 관한 쏘[illegible] 결정을 군비 축소 사업에 대한 와르샤와 [illegible]구의 공통적인 기여로서 또한 전반적이[illegible] 군비 철폐에 관한 동서 국가들 간의 [illegible]이게 하는 이니샤티브로서 간주[illegible] 조약 기구에 련합된 국가들[illegible] 서시기기 위한 로선을 시종일[illegible] 실시하고 있다. [illegible] 수 259[illegible] 이래 [illegible] 축소하였는데 [illegible] 축소로 이[illegible]

송 용남 그림

10 1-12 E8034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д. 19/21
ул. Чайковского
пой 8